



“하양식 구조로 백제 건축 재현, 고건축 복원의 시금석”

- 83만평 부지에 백제 역사 문화 재현촌 조성, 왕궁과 능사 5층 목탑 위용 드러내 -

인 어버린왕국의도읍지로불리는부여에 백제 가부활하고있다. 부여는서기 536년공주에서천도한뒤 660년패망할 때까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다. 그래서 부여에는아직백제문화의흔적이여기저기 남아 있지만 실체가 거의 없어 백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충청남도는 부소산에서 가까운 부여 군규암면합정리일원에백제문화화를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고있다.

찬란했던 백제 역사 문화의 재현을 위해 조성중인백제역사재현단지건설사업은총 10만평의 부지에 국비 1,64억원과지방비 1,63억원, 민자48억원등 3,77억원을투입하여 역사재현촌과 연구교육촌을 조성하는대규모복원공사이다. 목재값만16억원이들어간이사업은경복궁복원보다더큰 규모의 고건축 공사이다. 이들 건물의 건축 재료는나무, 기와, 돌, 흙등네가지. 사용되 는목재는18톤트럭 50여대분량이며, 기와 8만 2,000장, 화강석8,40톤, 흙50톤

이쓰인다.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은올해로착공한지 14년이되었다. 1994년시작된이사업은 당초 20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백제 문화의 정확한 고증에 필요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복성 투자 논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다. 특히, 자재 대금과 노임이 올라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48개 분야사업을 38개로줄이고완공시기도 2011년으로연장하였다.

왕궁과능사, 웅장한자태드러내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중핵심은백제역사재현촌 건설 사업. 83만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백제역사재현촌에는백제 건국 초기생활을볼수있는개국촌, 왕궁, 능사, 전통민속촌, 성문/누각등기능촌16동과공공휴양시설18동이들어선다.

시공은국내 대형 건설업체 중 고건축 실적이 가장 많은 삼부토건(지분율95%)이 주관사를맡아수행하고있다. 이회사는2001년6월 착공하여 올 10월 말현재 75%의 공정을마쳤다. 오는2008년6월말완공예정인공사사업비는1,05억원이다.

현재이곳현장은백제역사문화관과주차장 사업이 완료된 가운데 왕궁과 능사 복원공사가마무리단계에있다. 앞으로왕궁옆의개국촌에는백제초기의토성과망루·관아등이, 왕궁남문과성문사이에조성될전통민속촌에는계층별 가옥이 만들어져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왕궁 서쪽 골짜기에는 각종 공방과 전통 음식점, 장터등을재현한산업교역촌과전통풍습과종교행사, 문예활동등을소개하는풍속종교촌이각각민자사업으로추진될예정이다. 그러나, 전통민속촌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그자리를테마파크화하는방향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역사재현촌모양은아직유동적이다.

백제건축기법인하양식구조로시공

왕궁촌과 바로 옆 능사에는140년의 세월을거슬러건축물들이그위용을드러내기 시작했다. 상상으로만 남아 있던 백제 시대의 모습이현실로그려지고있다.

중궁과동궁, 서궁등세부분으로구성된 왕궁은 회랑이 둘러쳐지면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임금이 정사를 보던 팔작지붕형태의중궁은정면7칸, 측면4칸의102평의규모로, 화려한단청이입혀지자옛백

제의 영화를 되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듯이보인다. 중궁전기둥 높이는무려 18m나 된다. 국내에서는 나무를 구하지 못해 캐나다산 다그라스로 대체하여 세웠다. 엄청난 높이의 고주와 채광창으로 보이는 중남문과 서까래단청이인상적이다.

국보백제금동대향로가발견된왕실사찰의 모습을 재현한 능사에는 일본의 국보 법륜사보다근사한목조탑이거대한몸체를 자랑하고있다. 570년백제시대절터로확인된 부여읍 능산리 능사에 있던 것을 학계의 고증을거쳐원형과최대한가깝게재현했다. 9층 건물 높이(38m) 5층 목탑의 바닥면적은불과16평. 한치의오차가허용될수없을 만큼 난공사였음을 짐작케한다. 특히, 길이가 9m에 달하는 5층 목탑의 상륜부는구리로표면처리를한뒤옷칠을하고금박을부착한 다음 코팅함으로써 표면 색깔이 변치 않도록처리하였다.

왕궁 앞에는 정문이 될 성문이 웅장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다. 수려함이 광화문에 버



9층 건물 높이의 능사 5층 목탑.

미니인터뷰

용 태 중 삼부토건현장소장(이사)

“유구 없는 백제 건축물을 재현하는데 무한한 자부심 느껴”



“나당연합군에패망하여 소실됨으로써남은건축물이없는 시점에서 백제 목조건축물을재현하는책임자로서무한한자부심을느끼고있습니다. 앞으로자문위원들의도움을받아최대한완벽하게백제건축물을보여주겠습니다.”

용태중 소장은 백제역사재현촌 건설 공사가 경복궁 중건 이래 가장 큰 고건축 복원 사업인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도 백제 유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재 하나하나를 자문을 통해 공사를 해야 하므로 공기가 지연되는등어려움이많다고설명하였다. 그는 특히발주처관계자들의찾은인사이드으로 고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데 애로를 겪는점이안타깝다고지적하였다.

하지만그는이러한어려움속에서도국내최대의전통건축인만큼 ‘전통건축기술력축적’, ‘하자발생률 0%’라는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사실 저도 고건축 현장은 처음입니다. 주로 현대 건축공사만 해온 저에게 이 사업은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충실한 고건축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현건설기술과관리노하우를충분히활용하도록할계획입니다.”

그는 서울 르네상스호텔, 청평 한류리조트호텔, 마포 사회복지회관 등 굵직한 건축 공사를 거쳐 2002년 이곳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였다. 처음 접해본 공사였지만 최기영 대목장 등 고건축 베테랑들을 중심으로 백제 역사 문화를 찾고 연구하여 훌륭하게 재현해냄으로써이젠고건축 전문가가 다되었다.“현재 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촌 공사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백제미륵사지 복원 공사, 신라 황룡사 복원공사, 왕궁복원공사등삼국시대의건물복원공사에적극참여하고싶습니다.”



금가는성문의양쪽에는재현촌을둘러쌀석축성벽이긴꼬리를드러내기시작했다.

이들 건축물은 기초에서 건축, 단청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단청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녹색톤인데 고분이나 성벽 등 백제가 남긴 유물들을 모두채취해재현해낸색이다.

단청을그리는모습.



특히, 이번 재현 공사에서는 백제 고유의 하양식이라는 전통 건축공법이 첫선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하양은 서까래를 받는 도리 아래에 놓여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돌출되어 공포를 이루는 부재이다. 하양은 구조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후대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의장 요소로 발전하여 장식적 기능을 가진 부재로 변화하게 된다. 서까래 사이에

백제전통건축기법인하양식공법을적용하여재현한중궁전.

끼운 지지대가 아래로 향한 채 처마를 떠받치는 독특한 형태의 이 건축법은 백제 건축의 정수로 꼽힌다.

창조적재현으로고건축복원의시금석

백제역사재현촌사업은 단순한 관광지 조성 사업이 아니다. 사라진 백제 건축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창조적인 재현 작업이다. 또한, 후손에게 남길 미래의 문화재를 조성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많은 전란을 통하여 수많은 문화유산을 잃어버렸다. 백제 문화 역시 유구 조차 남아 있지 않아 고증에 어려움을 겪었고, 복원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인 적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고증 여부를 떠나 그동안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백제 문화를 재현해 놓았다는 의미가 크다. 특히, 이 사업은 향후 이루어질 향릉사 9층탑 등 고건축 복원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 · 사진: 이형우 기자